논술시험, 그 의의와 대책

백 종 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교육부의 '새 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 기본계획' (1995. 12. 19, 교육부 고시 제1995-8호)에 따르면, 1997학년도 대학입학 학생선발은 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주요 전형자료로 삼고, 필요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되 필답고사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오로지 '논술고사만'을, 사립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전국 대학 가운데 대학별 고사로 개별 교과목 시험을 부과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 25개 정도의 대학이 논술고사만 시행하기로 하고 입시전형에서 반영 비율을 최저 2%(서울대 자연계)로부터 최고 20%(가톨릭대)까지로 정했다고 발표하였다(『경향신문』, 1996. 3. 6. 참조). 3년 전에 몇몇 대학의 입시에 도입되어 그간 주로 국어·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 개별 교과목과 병행하여 시행되던 '논술고사'가 단독으로 그것도 유일하게 대학별 고사로 존속하게 됨에 따라, 이 시험의 의의를 되새겨 보고, 그 동안 나타났던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대학입시 관계자들의 큰 과제로 다가왔다.

4년 전 대학입시에 '논술시험'을 도입하는 데 앞장 서, 세계 여러 나라의 논술시험 제도를 검토하고 그 후 3년간 출제와 채점을 번갈아 해 본 경험이 있는 필자는 아래에서 먼저 대학입시의 한 가지로서 '논술시험은 어떤 시험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지난 3년 동안 대개 그러했듯이 다시 '논설문 쓰기' 형태의 논술시험

이 시행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1. 논술시험은 어떤 '시험'이어야 하는가

1) '논술'과 논술 시험의 의의

논술이란 일정한 주제를 논하여 자기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따지고 가려서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진술함을 말한다. 이때 이 서술이나 진술은 논리적이어야 함이 전제된다. 그리고 서술이나 진술은 말로써 할 수도 있고 글로써 할 수도 있으므로 논술에는 논리적인 글쓰기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하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논술시험은 면접시 구술 고사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별도의 쓰기 시험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수많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쓰기' 시험이 여러 면에서 무난하므로, 현재 각 대학의 입학 시험에서는 논술쓰기가 부과되고 있고, 자연스레 이것이 중심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글은 이 생각의 표현 방식인 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글이 논리적으로 쓰이고 또 쓰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 소설도 희곡도 수필도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쓰여지는 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외에 일기나 편지, 기행문이나 보고서, 기사문 등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쓰여질 때 좋은 글이 된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설하는 글도 논리적이어야만 그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글쓰기 가운데서도 '논리적' 요소가 주도하는 것은 논설문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글인 논설문은 무엇보다도 '논리적'이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은 의견이 여럿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펼쳐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의 의도의 달성은 그 주장이 충분한 근거 위에서 논리적으로 개진될 때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술시험이라 하면 일차적으로는 '논설문 쓰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논설문 쓰기에 적합한 소재나 주제는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의 시험만으로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기초 능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시험 내용과 방식이 각급 학교의 학습 내용과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시험 부과의 목적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학습 내용과 수준의 평가에 있다고 한다면, '논설문 쓰기' 시험을 통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에 있는 수험생이 평소 길러야 할 중요한 다른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쓰기 시험을 병행 부과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합당할 것 같다. 이런 쓰기 시험으로 고려해 봄직한 것은 '감상문 쓰기' 같은 것이다.

'논설문 쓰기'를 위한 학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문제, 곧 인간이 모여 사는 데서 비롯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를 통해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하게 할 것이며, '감상문 쓰기'를 위한 학습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감흥을 불러 일으켜 청소년들의 미적 상상력을 촉진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타인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타인들과 화합할 줄 알면서 자신의 주견(主見)을 논리 정연하게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수량화·획일화의 보편 이성의 세계 안에 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그리고 키우며 타인의 고유한 세계와 교감하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시민 교육의 기본 목표이고, 그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에도 부합한다. 또한 보편적인 논리적 사고 능력과 함께 특성있는 창의력, 개별성 있는 미적 상상력과 정서를 함양함은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보편적인 토대를 닦는 일이다.

2) 논술시험의 정체성(正體性)

이제 논술시험이 갖는 이런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여야 하고, 그 채점의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쓰기'의 시간과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숙고해 보자. 논술시험이 대학 입학시험과 같이 중요한 시험의 전형 자료가 될 때, 이 문제들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시험 기관은 의당 그것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입학 전형 수단으로서 논술시험이 수험생에게 부과된다면, 시험 관련 기관(즉, 대학과 교육부 등)은 무엇보다도 먼저 논술시험의 교육적 목표와 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대학별 고사로서는 논술시험을 거의 유일한 전형 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그것을 통해 수험생의 당락이 크게 좌우되고, 대학입시에서의 당락이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한국의 현실인 만큼 논술시험은 시험으로서 정체성과 객관성 그리고 적합성을 가져야 하고, 고등학교 교과 내용과의 상관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여러 대학에서 시행된 논술시험은 이 점들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남겼다. 논술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은 이 점들을 고려하여 좀 더 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런 시험 방식을 제안하고 권고하는 교육부나 교육개혁위원회 등에서는 각 대학이 역량을 키워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의 대학입학 능력을 판별하는 시험으로서 논술시험은 반드시 일정한 내용과 지식의 수준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에 상응해서 출제에서나 채점에서나 전문가가 있게 마련이다. 만약 기성의 전문가가 없으면 대학은 논술시험의 전문가를 양성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예로 미루어 볼 때, 학내 교수 중 '그 사람 글은 그런대로 괜찮다'는 정도의 평을 듣는 사람이면 거의 전공에 관계 없이 '아무나' 출제할 수 있고 채점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 논술시험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출제 교수나 대부분의 채점 교수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입시 전문가 수험생들에게 아마추어 교수가 출제하고 채점한 격이었다.

지난 3년간 각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소재를 택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교과서 밖에서, 그것도 대학의 교양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물론 논술시험이 고등학교의 특정 교과

목의 이해 수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험생의 종합적인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등학교의 학습 과정이 엄연히 교과목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는 마당에, 그 내용을 어느 교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소재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용을 해치거나 학교 밖의 교습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대학입시의 일부로서의 논술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목에서 내거나, 특정 교과목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에서 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서 재래의 시험 방식이 선택형이나 단답형 혹은 단순 서술형이었다면, 논술시험은 같은 문제를 '논술형'으로 묻고 대답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문제의 소재나 주제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목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논술시험이 어떤 주제에 대한 이른바 표준적인 생각을 수험생이 주입(注入)받아 되쏟아 써내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개진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험 시간과 쓰기 양이 배정되어야 한다. 여러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건대, 시간은 180분 정도(최소 120분)는 주어져야 하고, 글의 길이는 1,000자~2,000자 정도로 자유재량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논술쓰기의 일정한 분량과 시간을 제시했을 때는 그것이 단지 채점의 용이성이나 답안지 재단(裁斷)의 편의성 등 지엽적인 것의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시험의 교육 목적상, 평가 의도상 적합성 때문에 그렇게 정해지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논설문 쓰기' 논술시험의 요체

1997학년도부터 국어·영어·수학 등과 같은 개별 교과목의 대학별 고사는 지양하되, '논술 등 필답고사'는 괜찮다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논술시험의 성격은 여전히 분명하지가 않다. 교육부 지침서에 보면, '논술고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합한 능력 및 창의성과 사고 전개 과정의 타당성 등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제나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서술식으로 출제하는 필답고사의 한 유형"이라 규정되어 있고, 그 유형으로서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작문형', 포괄적 주제에 대한 일반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일반 논술형', 통합교과적 주제에 대한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통합교과적 논술형'(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국·영·수 등 특정 교과목 위주의 변형된 논술고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당부가 덧붙여져 있다.

그러나 부가된 유의 사항을 빼면 논술고사에 대한 이러한 규정과 지침은 종전에 비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더 구체화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지난 3년간 그랬듯이 앞으로도 논술고사는 '논설문 쓰기' 위주의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논설문 쓰기' 시험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고, 가져야 하는 것인가? 지난 3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수험생·채점자 간에 이 '논설문 쓰기' 논술시험의 성격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그로 인해 수험 준비에도 혼란스러운

점이 적지 않아 보이므로 '논설문 쓰기'로 치러지는 논술시험과 관련한 중요한 점들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1) 논설문의 성격과 종류

논설문으로는 전문적인 학술 논문, 평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사에 대한 자기의 새로운 견해나 사상을 밝히는 글 그리고 시사적인 비평문, 신문 사설 등을 들 수 있겠다.

논설문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글로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여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를 글쓴이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적 의식 아래서 쓰여진 글이다. 그러니까 논설문은 어떤 의견을 주장하거나 찬동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쓰여진 글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의 시사 칼럼이나 사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글이다. 그래서 그런지 논술시험 준비 과정에서 신문 논설을 자료 삼아 공부하는 것을 권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예를 많이 본다. 신문 논설은 어느 정도 비전문적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실을 이해시키고 어떤 사안에 대해 논평함으로써 일정한 의도를 전달하는 데 그 목표를 두는 게 보통이므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글에 친숙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신문 논설은 대학입학을 위한 논술시험 준비의 본보기 글로서는 내용상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

신문 논설은 시의성(時宜性)을 갖기 마련이어서 시사적 신문 논설은 특정 주제에 관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쓰여진 글이다. 주제가 특수하고 단편적인 경우가 많고, 논조는 사뭇 웅변적이고 다분히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 어떤 경우에는 독자가 흥분, 분개하도록 부추기는 — 경우가 많으며, 신문 논설을 통해 제시되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즉각적이고, 그런 만큼 다른 문제들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신문 논설은 대개의 경우 주어진 주제에 관해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점에서 논술시험에서 응시자가 써야 할 글과 형식상 공통점을 갖기는 한다. 게다가 신문 논설은 독자에게 시사 현안 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고 공론(公論)에 대한 방향을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나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논술시험 준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신문 논설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대학 과정에서 전문 분야 연구에 진입할 소양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대학입학을 위한 논술시험 준비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하게 쓰여진 신문 글보다는 깊은 사념을 거쳐 쓰여져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고전을 읽고 거기에 담겨 있는 사상을 음미하고 그런 주제에 관해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2) '논설문 쓰기' 시험의 교육적 목표

'논설문 쓰기'로 치러지는 논술시험은 한낱 평가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치르기 전의 긴 준비 과정에서 응시자가 연마해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

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학입학 시험의 일부로서의 논술시험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한창 정신적 성숙기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사를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르고 식견(事理分別力)을 갖추게 한다.

둘째, 질적으로 좋고 양적으로 많은 독서를 통해 인류의 역사적·정신 문화적 자산을 공유케 하여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 되든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양식을 갖게 한다.

셋째, 인간사의 중요한 문제에는 비록 현자(賢者)들일지라도 견해가 엇갈리는데, 그 엇갈리는 이유를 통찰하고 스스로 주관을 세워 평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한다.

넷째,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섰으면, 이견(異見) 가능성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아계발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사회 속에서 보람 있는 개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한다.

요컨대 수준 높은 교양인 육성이라는 교육적 목표 아래 시행되는 논술시험은, 따라서 응당 수험생이 이런 교육 목표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주제를 내걸고, 그 주제에 대한 논설문 쓰기를 시켜 그의 ① 문제 파악 능력, ② 깊이 있는 사고 능력, ③ 비판적·주체적 사고 능력, ④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평가한다. 여기서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이란 주어진 문제를 다각도에서 관련되는 다른 문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조망하는 능력이라 풀이할 수 있고, '비판적·주체적 사고 능력'이란 있을 수 있는 여러 시각과 관점을 검토한 후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늘려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에는 글 구성 능력, 논증 능력, 표현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논설문 쓰기' 시험에 적합한 주제

그러면 이런 교육적 목표와 평가 항목을 가진 '논설문 쓰기' 시험의 논술 주제로서는 어떤 것이 적합할까 ?

논술시험은 수험생에게 보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수험생이 특수한 사례들을 이와 관련해 검토한 후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주제로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 원인의 문제가 더 적절하다. 송사(訟事)가 벌어진 후에 어떻게 하면 판결을 잘 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송사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도를 생각케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힘써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논술시험의 논술 주제로는 신문 사설에서 다룸직한 그때 그때의 현안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다룸직한 원칙적인 문제들이 좋겠다.

신문 논설이 쓰여지는 목적과 대학입시에서 논설문 쓰기를 부과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그 주제의 성격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신문 사설 가운데 평균적인 것 몇을 뽑아 보면, '은행의 주식 투자 편중'(『한국일보』, 1994. 10. 1), '피케이 권력 독점 우려된다'(『한겨레신문』, 1995. 9. 17), '또 기름 流出 사고인가'(『중앙일보』, 1995. 9. 23), '통신개편 시급하다'(『조선일보』, 1996. 2. 5), '버스 罷業만은 막아야 한다'

(『경향신문』,1996. 3. 17), '때아닌 정계개편론'(『동아일보』,1996. 3. 19)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논설들의 주제와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정치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문제와 관련해 이해 득실이 주 관심사이고, 대부분 한시적이며 국내 혹은 국지적인 문제이다. 이런 주제에 비해 '논설문 쓰기' 시험의 논술 주제로 적합한 교과서적인 문제들은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것이다.

① 보편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가령 자유·평등·정의의 문제

② 보편적 인류애와 관련되는 문제, 가령 이웃 사랑의 의의, 국가간의 전쟁은 불가피한가, 세계의 영구 평화는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

③ 선악의 근본 문제, 즉 무엇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냐 하는 문제, 이양자의 구별과 그 의의

④ 공동체 원리의 문제, 가령 개인간·계층간·계급간·지역간·국가간 갈등의 원인 분석과 문제 해소 방안

⑤ 역사 원리의 문제 또는 인간사(人間事)를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함을 일러 주는 사례와 사건의 조명

⑥ 우주에서의 인간의 지위 문제, 예를 들어 인간은 자연 안에 있는가, 자연 위에 있는가 하는 문제

⑦ 자아 실현과 사회 안에서 개별성 발양의 문제 등

각도를 달리해서 말하면, 고등학교 사회계열(윤리,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철학, 종교 등) 교과서에서 원론적으로 다룸직한 문제, 사태에 대한 낱 지식이 아니라 식견을 요하는 문제, 언제 어디서든 의견이 분분함직한 문제, 그러니까 아직 하나의 정답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문제가 논술시험의 주제로서 적합하다. 더 줄여서 말하면, 토론거리가 될 만한 인간의 삶을 위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가 논술의 대상으로는 좋다.

논설문 쓰기 시험의 부과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항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외우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답이라고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보편성이나마 추구할 수 있는 생활 자세를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도 많으며, 어찌보면 생(生)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이런 종류의 것들이다. 우리가 인간적 삶을 누리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도 토론을 거쳐 잠정적으로나마 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숙려는 우리에게 사리분별력을 주고, 더불어 삶에 필요한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길러 줄 것이다.

4) '논설문 쓰기' 시험의 한계

'논설문 쓰기' 시험 문제를 제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정밀하게 채점한다 해도, 그를 통해 수험생의 사고 능력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길러 가져야 할 중요한 모든 능력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 오늘날 고도의 지식 산업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자기 연령에 알맞은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외에도 유쾌한 사회생활을 하고 보람 있는 학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인의 주장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 남의 견해의 요점을 쉬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사실에 대한 관찰과 이해 능력, 심미적 감상 능력, 기존의 것을 뛰어 넘어 창안으로 나아갈 풍부한 상상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능력들은 논술, 토론 능력 못지 않게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추어야 할 도덕 감정, 도덕적 실천 능력, 즉 덕성(德性)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논설문 쓰기' 시험을 통해서는 거의 평가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다.

'논설문 쓰기'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수험생의 대학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처럼 여러 방면의 제한점을 갖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 기관은 '감상문 쓰기' 시험 방식을 추가한다든지, 면접·구술고사를 좀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진지하게 시행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백종현/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철학회 학회지 『철학』 편집인, 계간 『철학과 현실』의 편집·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칸트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대상 개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칸트 〈실천이성비판〉 논고』, 『인문과학 잘알기』 등이 있고, "개인과 인간 주체 개념의 형성", "비진리의 가능성과 그 의미"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